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 간 관계에서 지지체계와 문화정체성의 조절효과

이 승 민

건국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양 은 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해외유학경험 후 귀국한 성인들의 재문화충격 경험과 주관적 안녕감을 알아 보고, 지지체계(가족지지, 모국친구지지, 외국친구지지)와 문화정체성(모국정체성, 외국정체성)이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19세 이전에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한국으로 되돌아온 157명의 귀국성인이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재문화충격과 각각의 조절변인에 대해 이원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 간에는 부적의 관계가 있었으며,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강도는 가족지지가 높을 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문화충격, 사회적 지지 중 한 요인, 문화정체성 중 한 요인을 대상으로 삼원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재문화충격, 가족지지, 모국정체성의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특히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강도는 가족지지와 문화정체성 중 한가지만 낮을 때 보다 모두 다 낮을 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귀국성인들의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가 조절가능하며 재문화적응과정에서의 가족지지(환경적 요인)와 모국정체성(개인내적 요인)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재문화충격, 문화정체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안녕감

[†] 교신저자 : 양은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Tel : 02-3290-2865, E-mail : yange@korea.ac.kr

귀국한 유학생들의 재적응과정에 대한 어려움이 주목받은 것은 조기유학으로 떠났던 유학생들이 IMF의 여파로 강제 귀국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최근 유학생/해외 이민권자/해외 시민권자들의 귀국 행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2013년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해외로 이주했던 재외동포의 역 이민자 수는 3621명으로 2003년(2962명)에 대비해, 약 12.9%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귀국성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경험하는 재문화적응과정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귀국성인들의 재적응 어려움에 대한 연구 및 이들의 재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일 뿐 아니라, 존재하는 대부분의 연구들도 재문화적응과 관련된 변인을 탐색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문화적응과정의 스트레스를 재문화충격으로 개념화하고, 재문화충격과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적응 이론(stress-coping adaptation theory)에 기초하여, 재문화충격이라는 특수한 유형의 스트레스가 가지는 부정적 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 개인내적 대처요인과 환경적 대처요인들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조절요인의 확인을 통해 재문화충격의 부정적 영향에 보다 잘 대처하는 혹은 취약한 귀국성인 집단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심리적 개입모형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재문화적응과 재문화충격

귀국 후 재문화적응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고충 및 스트레스를 재문화충격 혹은 역문화충격이라고 한다. 이러한 역문화충격은 귀국성인들이 떠나있는 동안 많이 변해버린 모국사회를 예상하지 못하고 과거모습을 예상하며 귀국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충격과 혼란을 의미하는데 이는 마치 “조국에서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는 심리적,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증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Hurn, 1999). 이러한 재문화충격에는 정체성 및 가치관에 대한 혼란, 변화된 삶의 방식에 대한 적응 어려움, 자율성의 부족, 위계적 질서로 인한 부적응, 대인관계적 어려움, 모국 사람들로 부터 받게 되는 편견, 진로결정 문제 등이 포함되며(Gama & Pedersen, 1977), 불안감, 혼돈감, 무기력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경험을 수반한다(Gaw, 2000). 일부 연구자들은 재문화충격이 해외 거주 중에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사하다고 보고하나(Adler, 1981; Rogers & Ward, 1993; Sussman, 1986), 다른 연구자들은 재문화적응과정이 새로운 문화에서 경험했던 문화적응과정보다 더 어렵다고 주장한다(Black, Gregersen, & Mendenhall, 1992; Martin, 1984). 새로운 문화로의 이주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문화경험을 앞두고 문화충격에 대해 미리 예상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기 마련인데, 이에 비해 모국사회로 귀국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곳이라는 느낌보다는 본래의 인식처로 되돌아온다는 생각에 변화와 재문화충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문화적응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 결과, 예상하지 못했던 모국의 변화들과 해외 거주동안 변화된 개인적 특성(내면적인 가치관, 태도, 행동 등)으로 인해 큰 혼란감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Martin, 1984). 더불어 이들의 주변인들 또한 이들의 변화를 미리 예상하지 못한 채 재회하게 되면서 당황하기 마련

이다. 즉, 재문화적응에서 있을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낮은 예측력, 해외로 떠나기 전에 지각했던 모국사회를 기억하며 돌아오는 경향성, 해외거주동안 문화적응과정에서 변화된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낮은 지각력, 이들의 변화에 대한 주변인들의 낮은 예측력 등 (Brislin & Pederson, 1976; Sussman, 1986; Uehara, 1986)이 재문화적응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재문화충격은 나이가 어릴수록(Moore, Jones, & Austin, 1987; Rohrich & Martin, 1991), 여성인 경우(Brabant, Palmer, & Gramling, 1990; Rohrich et al., 1991), 미혼인 경우(Moore et al., 1987), 교육수준이 높을수록(Moore et al., 1987), 해외체류기간이 길수록(Moore et al., 1987), 해외체류 중 조국방문빈도가 낮을수록(Branbant et al., 1990), 이주경험이 적을수록(Rohrich et al., 1991), 귀국시기가 최근일수록(Yoshida et al., 2002), 귀국에 대한 심리적인 준비가 낮을수록(Rogers et al., 1993; Sussman, 2001)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문화충격과 안녕감 간의 관계

재문화충격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 및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재문화충격이 클수록 불안, 우울, 사회적 어려움(Rogers et al., 1993),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Salmon, 1987)를 높게 지각하며, 반면 개인적인 만족은 낮은 것(Gao & Gudykunst, 1990)으로 나타났다. 특히 귀국청소년들은 재문화적응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소외되는 경험을 하며(문경숙, 임재훈, 윤철경 송민경, 2009; 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2010; 이영선, 이동훈, 2009; 이주원, 2013)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 영역에서 외로움, 우울감, 무가치감, 불안감 등의 심리적 부적응 문

제를 겪는다(박영숙 등, 2002). 이러한 현상은 귀국대학생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일반대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인 대학생활 적응이나 삶의 질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정서적 측면에서는 높은 외로움을 느낀다(오경자 등, 2010). 특히 귀국대학생들의 약 15% 정도가 한국과 해외거주국의 문화에 대한 유대감을 모두 유지하지 못하는 주변화 유형에 속하며 더욱더 높은 외로움과 우울감을 보고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귀국집단의 재문화적응과정은 심리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재문화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은 부정적 정서경험을 초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좀 더 나아가 재문화충격과 안녕감의 부적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었다.

재문화충격이 안녕감의 저하와 관련되기는 하나, 이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Lazarus와 Folkman (1984)의 스트레스-대처-적응 이론(stress-coping adaptation theory)을 토대로 예측해보았다. 본 이론에 의하면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조절하고 완화할 수 있는 내외적 요인들이 존재함을 주장한다. 이 이론에서는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스트레스 상황에 있어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평가와 대처의 과정을 강조한다. 즉, 스트레스가 높다고 적응문제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개인적, 환경적 조절요인으로 스트레스가 감소되거나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적 조절요인으로는 통제감,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문제 해결 기술 등이 있으며 환경적 자원으로는 사회적 지지가 이에 해당한다. 재문화충격

역시 귀국에 수반되는 변화로부터 기인한 스트레스임을 고려할 때, 재문화충격과 심리적 적응 간에도 개인내적 혹은 환경적 자원이 이들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문화충격의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환경적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에, 개인내적 자원으로 문화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문화충격과 사회적 지지

먼저 사회적 지지에 대해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이주와 관련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같이 다양한 인생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중요한 대처자원 중 하나이다(Mallinckrodt & Leong, 1992). 일반적인 스트레스 관련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켜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어왔다(임성옥, 박민정, 2011; Cohen & Wills, 1985; Prezza & Sgarro, 1992). 귀국 후의 재문화적응과정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재문화적응과정의 심리적 적응(Huff, 2001; Stringham, 1990)과 관련되며, 주위 사람들의 낮은 관심 및 이해와 같은 사회적 지지의 부족은 재문화적응과정을 보다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nno, 2000). 더 나아가 재문화충격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의 기능은 사회적 지지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지원인 가족지지, 특히 부모로부터의 지지가 크게 지각될수록 모국사회로부터 수용받는 느낌을 받으며 재적응 경험에 만족감을 높임으로서 재적응의 어려움이 감소되었다(Yoshida et al., 2002). 유사하게 친구지지 또한 귀국청소년들의 삶의 만족감과 관련되며,

유사한 해외이주경험이 있는 친구의 지지와 그렇지 않은 친구의 지지 모두 귀국청소년들의 삶의 만족감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eto & Neto, 2011). 이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지지원들은 재문화적응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재문화충격이나 귀국 후 삶의 만족감과 같은 적응과의 관련성만을 주목해 왔다. 일반적인 스트레스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문화충격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아울러 사회적 지지를 구분하여 함께 고려한 연구 역시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귀국성인의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이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귀국성인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지를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이주 사회에서 형성한 친구로부터의 지지, 귀국한 모국사회에서 형성한 친구로부터의 지지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재문화충격과 문화정체성

문화정체성은 주로 새로운 문화권으로의 이주 시 발생하는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되어있다(Ward & Kennedy, 1994, 1999; Ward & Rana-Deuba, 1999). 문화정체성의 변화는 해외이주동안 문화적응과정을 통해 초래되는 당연한 변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문화에 점차적으로 적응하고 융화되면서 신체적 외모, 가치관, 관점, 행동, 삶의 방식, 세계관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정체성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Kidder, 1992). 이처럼 변화된 정체성은 귀국 후 재문화적응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정체성에서의 변화가 적을수록 즉, 모국 정체성이 높을수록 귀국 후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이 적다(Cox, 2004; Kanno, 2000; Sussman, 2001, 2002).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모국정체성이 높은 유형(통합과 동화)의 귀국자 집단은 더 낮은 수준의 우울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더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보고하였으며, 특히 모국정체성만 높은 동화집단과 외국정체성만 높은 분리집단의 경우 동화집단이 더 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오경자 등, 2010). 이러한 결과는 문화정체성이 재적응과정에서 안녕감을 증진시키고 어려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외국정체성보다는 모국정체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모국정체성이 모국 문화와의 동일시와 소속감을 제공함으로써 재문화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보다 잘 대처하도록 하는 개인내적인 자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문화충격에 대한 문화정체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문화적응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문화정체성이 중요한 조절변인임을 보고해 왔다. 문화적응과정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모국정체성은 행동활성화와 우울 간의 부적 관계를 감소시키는 조절요인으로서 작용하고(Hamill et al., 2009),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위험행동 간의 정적 관계를 완충하며(Umaña-Taylor, Updegraff, & Gonzales-Backen, 2011), 사회적 차별과 학업적응 간의 부적 관계를 감소시키고(Umaña-Taylor, Wong, Gonzales, & Dumka, 2011),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부적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urbide, Raffaelli, & Carlo,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록 문화적응과정과 재문화적응과정이 서로 구분되나 유사점도 있는 바, 재문화적응과정에서도 문화정체성, 특히 모국정체성이 재문화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사회적 지지와 문화정체성은 재문화적응과정에서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Huff, 2001; Kanno, 2000; Stringham, 1990; Sussman, 2001, 2002; Yosida et al.,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재문화충격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들 요인들이 완충적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반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재문화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과 사회적 지지 및 문화정체성의 관련성만을 검증하고 있으며(Neto & Neto, 2011; Ward & Kennedy, 1994, 1999; Ward & Rana-Deuba, 1999), 특히 일부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를 재문화충격과 심리적 적응의 매개요인으로서 상정하고 있는데(권명희, 2011; 김민정, 2011; Kor, Mikulincer, & Pirutinsky, 2012; Yosida et al., 2002), 이러한 연구는 귀국성인들이 재문화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재문화충격과 안녕감 간의 부적 관계가 완화되고 조절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어렵다. 반면 스트레스-대처-적응 모형(Lazarus et al., 1984)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스트레스가 가지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심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조절변인을 탐색하는 것은 재문화충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선별하고 적절한 개입방법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문화정체성이라는

개인내적인 대처자원과 가족지지라는 환경적 대처자원을 분리해서 보지 않고 이들의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검증해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내적 자원과 환경적 자원은 공존하는 요인이므로, 실제적 현상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두 요인의 역동을 함께 조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과거 문화적응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이주 문화에 대한 정체성, 사회적 지지가 함께 작용하여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였다는 결과가 있다(Lee, Koeske, & Sales, 2000). 구체적으로, 이주문화에 대한 정체성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만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적응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유사한 결과가 재문화적응 과정에서도 관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문화충격, 문화정체성, 사회적 지지의 삼원상호작용을 고려하려고 한다.

해외이주경험이 있는 귀국자들의 경우 1년 내에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적응을 한다고 하지만(Kobayashi, 1983), 일부는 지속되는 재문화충격과 정체성의 혼란으로 어려움을 경험한다(Minoura, 1988). 특히 귀국성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의 재문화적응과 안녕감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절요인들을 알아보는 것은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문화정체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와 문화정체성 각각의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이들의 조절효과를 보다 세분화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부모, 모국친구, 외국친구로 구분하여 지지원을

세분화하였으며, 문화정체성은 모국정체성과 외국정체성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문화충격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은 낮을 것이다. 둘째, 세 유형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부적 상관관계가 약화될 것이다. 셋째, 모국 문화정체성이 높은 경우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부적 상관관계가 약화되나, 외국 문화정체성이 높은 경우 이들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넷째, 사회적 지지와 문화정체성이 상보적으로 작용하여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 모국 문화정체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가 약화될 것이며,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모국 문화정체성이 낮은 경우 사회적 지지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가 약화될 것이며, 모국 문화정체성이 높을 때에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아동 및 청소년기 해외이주경험 후 한국으로 귀국한 남성 56명(35.7%), 여성 101명(64.3%), 총 157명의 성인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기준은 해외출국나이 19세 미만과 해외거주기간 3년 이상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데에는 미성년자 시기가 문화정체성 성립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고, 또한 일반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규정에 따르면 “해외 귀국 청소년”은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초, 중, 고등학생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박승리, 2012). 아울러 외국에서 또한 “귀국인(returnees)”을 청소년기에 2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한 사람들(Yoshida et al., 2009)로 정의한 점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해외거주기간을 2년 이상이 아닌 3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의 평균연령은 26.84세($SD=3.49$)이었다. 이들의 해외출국연령은 평균 11.94세($SD=5.63$)이었고, 과반수가 청소년시기인 13세-19세 사이에 출국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98명, 62.4%), 다음으로 초등학교시기인 8세-12세 사이가 24명(15.3%), 학령기 전인 7세 이하가 21명(13.4%), 해외에서 태어난 14명(8.9%)의 순이었다. 해외체류기간은 평균 9.31년($SD=4.07$)으로, 6년-10년이 87명(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11년-15년이 31명(19.7%), 3년-5년이 26명(16.6%), 16년 이상이 13명(8.3%)이었다. 이들의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131명(83.4%), 해외 시민권자가 22명(14.0%), 해외 영주권자가 4명(2.5%)이었다. 연구대상의 직업은 학생(대학생, 대학원생)이 74명(47.1%), 직장인이 59명(37.6%), 자영업/프리랜서가 21명(13.4%), 현재 구직활동중이 3명(1.9%)의 순이었다.

연구대상의 모집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서울소재 대학들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게시판에 공지하고 연구자의 지인을 통해 적절한 참여자들을 홍보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집된 연구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에 적절한 사람들을 소개받는 형식의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목적 및 연구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설

명을 들은 후 동의를 하였으며, 온라인 설문 을 작성하였다. 설문 종료 후 연구참여자에게는 약 4000원 상당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측정도구

재문화충격척도(Homecomer Culture Shock Scale; HCCS)

재문화충격척도(Homecomer Culture Shock Scale; HCCS)는 Fray(1988)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로, 해외이주경험 후 미국으로 귀국한 전 도시의 자녀들이 지각하는 재문화충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에게 적절하게 ‘미국’을 ‘한국’으로 변환하고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번역은 심리학 전공 교수 1인과 동일 전공 대학원생 1인에 의해 독립적으로 번역한 후 제 3의 이중언어자가 이를 역번역하여 원문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재문화충격 척도는 5점 척도를 사용하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귀국 후 경험하는 심리적 적응의 어려움을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본 척도는 4가지 하위요인(문화적 거리감, 대인관계적 거리감, 슬픔, 도덕적 거리감)을 포함하고 있다. 하위요인 중 문화적 거리감은 일반적인 문화적 풍습들과 관련된 내용이며(예: ‘나는 해외거주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이해 받는 느낌을 거의 받지 못한다’), 대인관계적 거리감은 귀국경험 후 대인관계적 양상을 평가한다(예: ‘나는 때론 동떨어지고 혼자라는 느낌을 받는다’). 슬픔은 귀국으로 인한 이별, 그리움, 상실감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예: ‘나의 살았던 해외국가를 생각하면 무언가 잃어버린듯한 허전함이 강하게 다가온다’), 마지막 하위척도인 도덕적 거리감은 재귀국 후 도

덕적 차이점에 대해 측정을 한다(예: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의 성도덕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 Fray(1988)의 연구에서 보고한 재문화충격 척도의 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는 .60에서 .80이었고, 전체척도는 .92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거리감 .82, 슬픔 .79, 대인관계적 거리감 .86, 도덕적 거리감 .51, 전체척도 .91로, 도덕적 거리감의 내적 일치도가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덕적 거리감에 해당하는 2문항과 어느 하위요인에도 포함되지 않는 1문항을 제외하고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도덕적 거리감을 제외한 후 하위요인 내적 일치도는 동일하였으며, 전체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재문화충격척도의 총점은 20점에서 100점 사이의 범위로 문항들의 값을 합산하여 산출되었으며 높은 점수 일수록 재문화충격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단축형 행복 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

주관적 안녕감은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한 단축형 행복 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사용하였다. 단축형 행복 척도는 7점 척도를 사용하는 총 9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척도로 긍정정서, 부정정서, 삶의 만족감의 세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개발자의 의하면 단축형 행복 척도의 총점은 모든 문항들의 값을 합산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9점에서 63점 사이의 범위로 문항들의 값을 합산하여 산출되었다. 높은 점수 일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에서 긍정정서는 ‘즐거움’, ‘행복한’, ‘편안한’을 포함하고 있고 부정정서는 ‘짜증나는’, ‘부정적인’, ‘무기력한’을 제시하여 평

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위요인에서 삶의 만족감은 우리의 삶을 개인적 측면(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 관계적 측면(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 집단적 측면(직장, 지역사회 등)으로 구분되어 만족감을 평가한다.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보고한 세요인의 Cronbach's α 계수는 .82-.89이었으며 부정적 정서를 역코딩하여 전체 척도에 대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88(온라인조사)와 .86(개별면접조사)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긍정정서가 .91, 부정정서가 .86, 삶의 만족감이 .86이었으며 전체척도는 .89이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 MSPSS)

부모, 한국친구, 외국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Zimet 등(1988)이 개발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번역은 심리학과 교수 1인과 동일 전공 대학원생 1인이 독립적으로 번역한 후 제 3의 이중언어자가 이를 역번역하여 원문과의 일치도를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원척도는 개인이 가족, 친구, 모임으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세 요인으로 평가하며, 각 지지요인에 대해 3문항씩 5점 척도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척도의 총점은 문항들의 값을 합산하여 산출되었으며, 각 지지요인에 대한 총점의 범위는 3점에서 15점 사이이다. 높은 점수 일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 지지를 모국의 한국친구와 해외이주 중 사귀 외국친구로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모지지, 모국친구지지, 외국친구지지의 세 요인으로 재구성하였다. 모국친구

지지와 외국친구지지의 측정은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나 지지원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수정된 척도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3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모두 .70이상이었으나,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243.75$, $df=51$, $TLI=.82$, $CFI=.86$, $RMSEA=.13$ 로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확인한 결과, 문항 6번과 7번, 8번과 9번, 11번과 12번, 15번과 16번의 오차항의 공분산을 연결하는 것이 적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들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각 문항쌍들은 동일한 내용이나 지지원이 모국친구와 외국친구로 구분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두 개의 측정변수가 매우 유사하거나 부정문 등 문항의 진술방식이 유사한 경우 오차항의 공분산을 연결하는 것이 적절하므로(홍세희, 2006). 해당 문항쌍들의 오차항 공분산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chi^2=96.22$ $df=47$, $TLI=.95$, $CFI=.96$, $RMSEA=.07$ 로 적합도가 향상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전체 .94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 모국친구가 .74, 외국친구가 .84, 가족이 .86이었다.

문화적응지표(The Acculturation Index; AI)

모국과 외국 문화정체성은 Ward와 Kennedy(1994)가 개발한 문화적응지표(Acculturation Index; AI) 척도를 손한나(2007)가 가정생활 등 연구대상에 직접적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된 일부 문항을 제외하여 수정, 빈안한 7점 척도로 총 19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화적응지표척도의 총점은 문항들의 값을 합산하여 산출되었으며, 범위는 19점에서 133점 사이이다. 높은 점수 일수록 문화정체성이 강한 것을 의

미한다. 문화적응지표는 Berry, Kim, Minde와 Mok(1987)의 문화적응 이차원 모형(모국문화와의 동일시와 외국(이주)문화와의 동일시)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문화적응지표는 한국(모국)문화와 외국(이주)문화 각각에 대해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화권과 관련된 가치, 인지, 행동 영역을 측정한다. 평정은 각 문항에 “전혀 비슷하지 않음(1점)”에서 “매우 비슷함(7점)”으로 7점 척도 상에 표시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모국) 문화정체성의 Cronbach's α 계수는 .94, 외국(이주) 문화정체성의 Cronbach's α 계수는 .92이었다.

분석방법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와 문화정체성이 조절하는 일련의 모형들을 독립적인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성별과 연령의 가능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이 두 변인을 1단계에 투입하였다. 먼저 사회적 지지 세 요인과 문화정체성 두 요인 각각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재문화충격과 다섯 가지의 조절변인에 대한 총 5회의 이원상호작용분석이 이루어졌다. 1단계에는 성별과 연령이 통제변인으로 투입되고, 2단계에는 재문화충격과 사회적 지지 중 한 요인 혹은 문화정체성 중 한 요인이 투입되었으며, 3단계에는 2단계에 투입된 요인들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되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지지와 문화정체성이 함께 작용할 때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 세 요인 중 한 요인과 문화정체성 두 요인 중 한 요인의 조합이 분석에 포함되는 총 6회의 삼원상호작용분석이 실시되었다. 1단계에는 역시 성별과 연령이 통제

변인으로 포함되었으며, 2단계에는 재문화충격과 사회적 지지 중 한 요인, 그리고 문화정체성 중 한 요인이 투입되었다. 3단계에는 2단계에 투입된 세 요인의 이원상호작용항들이 추가되었으며 4단계에서는 2단계에 투입된 세 요인의 삼원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다. 원점수를 사용하여 상호작용항을 산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재문화충격, 지지체계, 정체성은 먼저 표준화되고 상호작용항은 표준화된 재문화충격, 지지체계, 정체성의 곱으로 산출되었다(Dawson, 2014).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한 경우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 1 표준편차(SD)에서의 의미부여 값을 산출하여 회귀선을 그리고 그 기울기가 다른지를 검증하였다(서영석, 2010; Dawson, 2014).

결 과

표 1.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 성별	-								
2. 나이	.07	-							
3. 재문화충격	.07	.09	-						
4. 가족지지	-.06	-.04	-.24**	-					
5. 모국친구지지	-.11	.02	-.25**	.38**	-				
6. 외국친구지지	.01	.03	.03	.22**	.17*	-			
7. 모국정체성	-.08	.08	-.45**	.37**	.42**	-.02	-		
8. 외국정체성	.04	.01	.18**	-.07	-.09	.17*	-.10	-	
9. 주관적 안녕감	.01	-.08	-.51**	.38**	.28**	.21**	.26**	-.07	-
평균	.64	26.48	57.78	16.67	15.27	14.66	82.84	77.41	17.34
표준편차	.48	3.49	13.97	3.51	3.61	3.67	21.30	16.91	9.60

** $p < .01$

예비분석

본 분석에 앞서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학적 변인,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 직업, 국적, 해외출국시기, 해외체류기간과 연구변인 간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속변인인 연령, 해외출국시기, 해외체류기간과 연구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해외체류기간이 외국친구지지($r = .18, p < .05$)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성별, 직업(구직자 및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국적(대한민국 국적자, 외국 영주권 및 시민권자)에 따라서 연구변인에 차이가 있는지는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어떤 변인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인 평균 및 표준편차와 변인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재문화충격은 가족지지, 모국친구지지, 모국정체성,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정체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외국친구지지와는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은 가족지지, 모국친구지지, 외국친구지지, 모국정체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및 문화정체성의 조절효과(이원상호작용) 분석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족지지, 모국친구지지, 외국친구지지)와 문화정체성(모국정체성, 외국정체성) 각각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총 5회의 독립적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1단계에 성별 및 나이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재문화충격과 사회적 지지 요인 중 한 요인(가족지지, 모국친구지지,

외국친구지지) 또는 문화정체성 요인 중 한 요인(모국정체성, 외국정체성)을 개별적으로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재문화충격과 사회적 지지 혹은 문화정체성 요인 중 한 요인의 이원상호작용항(재문화충격과 가족지지, 재문화충격과 모국친구지지, 재문화충격과 외국친구지지, 재문화충격과 모국정체성, 재문화충격과 외국정체성)을 각각 따로 개별적으로 투입하여 총 5번의 독립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족지지만이 유의미한 조절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국친구지지, 외국친구지지, 모국정체성, 외국정체성을 각기 조절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았다.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재문화충격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은 주관적 안녕감 변량을 추가적으로 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문화충격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beta = .14, p < .05$)은 유의미한 효과가

표 2.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지지체계의 조절효과

단계	예측변수	B	SE	β	R^2	ΔR^2
1	성별(더미변인)	.35	1.61	.02	.01	
	나이(표준화)	-.81	.77	-.09		
2	성별(더미변인)	1.25	1.33	.06	.33**	.32**
	나이(표준화)	-.38	.64	-.04		
	재문화충격(표준화)	-4.22	.66	-.44**		
	가족지지(표준화)	2.64	.66	.27**		
3	성별(더미변인)	1.59	1.33	.08	.35*	.02*
	나이(표준화)	-.33	.64	-.04		
	재문화충격(표준화)	-4.18	.65	-.44**		
	가족지지(표준화)	2.23	.68	.23**		
	재문화충격X가족지지	1.26	.63	.14*		

* $p < .05$, ** $p < .01$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이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재문화충격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재문화충격과 가족지지의 ± 1 표준편차(SD)에서의 주관적 안녕감 값을 산출하여 회귀방정식에 대입하고 회귀선으로 표현하였다. 분석 결과, 그림 1과 같이 가족지지이 낮은 집단($b = -5.44, p < .01$)과 높은 집단($b = -2.92, p < .01$) 모두 재문화충격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회귀선(가족지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기울기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77, p < .01$). 즉,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부적 관계는 가족지지이 낮을 때 더 과중되어 나타나고 가족지지이 높을 때 더 감소되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문화정체성의 조절효과(삼원상호작용) 분석

다음으로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각 요인과 문화정체성의 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조절하는 삼원상호작용 효과 역시 총 6회의 독립적인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1단계 모형에서는 성별 및 나이가 포함되고, 2단계 모형에서는 재문화충격, 사회적 지지 요인 중 한 요인(가족지지, 모국친구지지, 외국친구지지), 그리고 문화정체성 요인 중 한 요인(모국정체성, 외국정체성)이 추가되었고, 3단계에서는 2단계에 투입된 요인들의 이원상호작용항이,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2단계에 투입된 요인들의 삼원상호작용항이 추가 투입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 요인들과 문화정체성 요인들 간 가능한 총 6개의 조합(사회적 지지 3요인 X 문화정체성 2요인)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재문화충격, 가족지지, 모국정체성의 삼원상호작용만이 유의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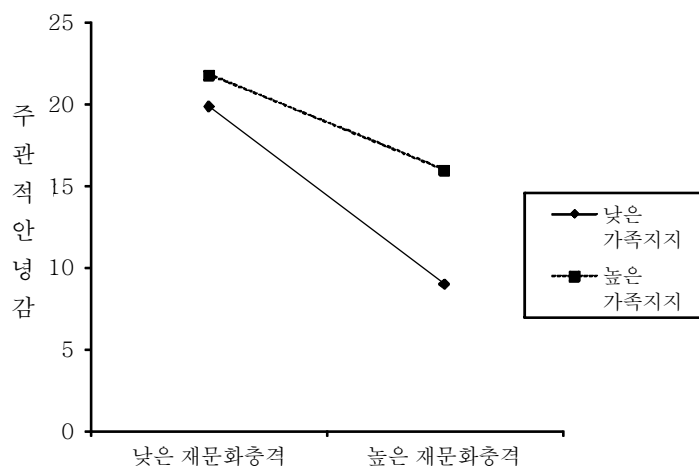


그림 1.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에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문화충격, 가족지지, 모국정체성의 이원상호작용항을 추가한 3단계 모형은 단일항들이 포함된 2단계 모형에 비해 유의한 추가적 설명량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삼원상호작용항을 추가한 4단계 모형은 이원상호작용항들이 포함된 3단계 모형에 비해 3%의 유의한 추가설명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재문화충격과 가족지지, 모국정체성의 삼원상호작용항은 $\beta = -.22$ 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표 3.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체성의 조절효과

단계	예측변수	B	SE	β	R^2	ΔR^2
1	성별(더미변인)	.35	1.61	.02	.01	
	나이(표준화)	-.81	.77	-.09		
2	성별(더미변인)	1.21	1.34	.06	.33**	.32**
	나이(표준화)	-.33	.65	-.03		
	재문화충격(표준화)	-4.40	.72	-.46**		
	가족지지(표준화)	2.76	.69	.29**		
	모국정체성(표준화)	-.46	.76	-.05		
3	성별(더미변인)	1.47	1.34	.07	.36	.02
	나이(표준화)	-.32	.65	-.03		
	재문화충격(표준화)	-4.34	.74	-.45**		
	가족지지(표준화)	2.57	.77	.27**		
	모국정체성(표준화)	-.22	.76	-.02		
	재문화충격X가족지지	1.29	.71	.14		
	재문화충격X모국정체성	.52	.64	.06		
	가족지지X모국정체성	.49	.51	.08		
4	성별(더미변인)	1.71	1.32	.09	.38*	.03*
	나이(표준화)	-.37	.64	-.04		
	재문화충격(표준화)	-3.93	.75	-.41**		
	가족지지(표준화)	1.66	.83	.17*		
	모국정체성(표준화)	-.37	.75	-.04		
	재문화충격X가족지지	.98	.71	.11		
	재문화충격X모국정체성	.21	.64	.02		
	가족지지X모국정체성	.43	.50	.07		
	재문화충격X가족지지X모국정체성	-1.43	.55	-.22*		

* $p < .05$, ** $p < .01$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재문화충격, 가족지지, 모국정체성의 삼원상호작용이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삼원상호작용의 효과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재문화충격, 가족지지, 모국정체성의 ± 1 표준편차(SD)에서의 주관적 안녕감 값을 산출하여 회귀방정식에 대입하고 회귀선으로 표현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지지와 모국정체성이 모두 높은 집단 1($b = -4.17, p < .01$), 가족지지는 낮고 모국정체성은 높은 집단 3($b = -3.28, p < .05$), 가족지지와 모국정체성이 모두 낮은 집단 4($b = -6.55, p < .01$)에서는 재문화충격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지지는 높으나 모국정체성이 낮은 집단 3($b = -1.74, p > .05$)의 기울기는 유의하지 않았다(그림 2). 회귀선의 기울기 차이 분석 결과, 집단 2(높은 가족지지, 낮은 모국정체성)와 집단 4(낮은 가족지지, 낮은 모국정체성)의 회귀선 기울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94, p < .01$). 또한 집단 3(낮은 가족지지, 높은 모국정체성)과 집단 4(낮은 가

족지지, 낮은 모국정체성)의 회귀선 기울기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 = 2.15, p < .05$). 이는 가족지지와 모국정체성이 모두 낮을 때보다 둘 중 한 요인이라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 간 부적 관계가 완화됨을 나타낸다. 즉 낮은 수준의 가족지지는 높은 수준의 모국정체성으로, 낮은 수준의 모국정체성은 높은 수준의 가족지지로 그 효과가 보완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국성인들의 재문화적응과정에서 중요한 재문화충격과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특히 이들의 관계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와 문화정체감의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재문화충격은 가족지지, 모국친구지지, 모국정체성,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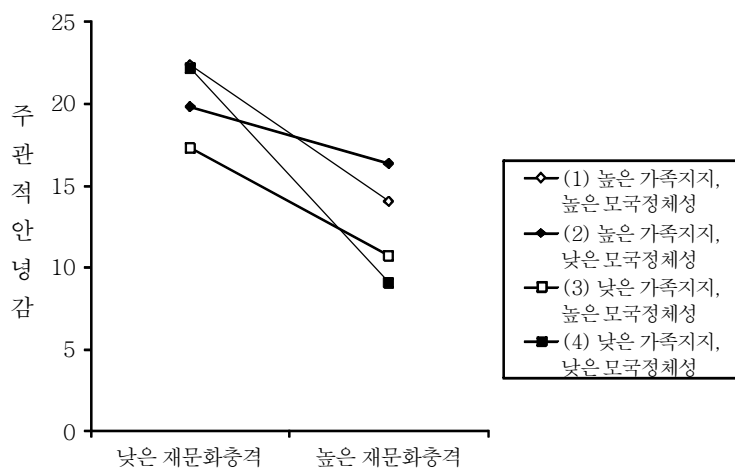


그림 2.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모국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

체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외국친구지지와는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은 가족지지, 모국친구지지, 외국친구지지, 모국정체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문화정체성 각각을 조절변인으로서 이원상호작용으로 분석한 결과,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만이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각 요인과 문화정체성의 각 요인을 조절변인으로 하여 삼원상호작용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재문화충격, 가족지지, 모국정체성의 삼원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문화충격은 주관적 안녕감과 부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재문화충격이 불안, 우울, 스트레스, 소외감과 같이 정신건강의 부정적 차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문경숙 등, 2009; 오경자 등, 2010; 이영선 등, 2009; 이주원, 2013; Rogers et al., 1993; Salmon, 1987), 본 연구에서는 재문화충격이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긍정적 차원과의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일관된 결과들은 모국문화에서 재적응과정 중 경험하는 스트레스, 즉 재문화충격 경험이 클수록 다양한 차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논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문화충격이 스트레스의 특정한 유형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는 재문화충격으로 인하여 개인이 정서적 혹은 인지적으로 경험하는 안녕감이 저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가설과 관련하여서는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는 지각된 가족으로부터의 지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 귀국집단의 주관적 안녕감에 있어서 가족지지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와 일치하는 결과이다(Yoshida et al., 2002). 상관분석을 살펴보면 가족지지 이외에도 모국친구지지, 외국친구지지가 모두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과 범문화적으로 관련된 요인이기 때문일 것이다(Diener,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재문화충격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형에서는 가족지지만이 재문화충격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문화충격이 주관적 안녕감을 저하시키지만 가족의 지지가 높은 경우에는 낮은 경우보다 안녕감의 저하 정도가 덜 크게 나타났다. 가족은 개인의 사회적 환경에서 가장 기초가 되며 결속력이 강한 체제로, 이차적으로 형성되는 친구체제와는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가족과의 관계는 개인의 위기대처능력을 촉진할 뿐 아니라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Katz & Lowenstein, 1933, 김연수, 2012에서 재인용). 따라서 재문화적응경험과 같은 인생에서의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위기상황에서는 지지체계 중에서도 가족의 지지가 가장 친밀하고 안정적인 지지원으로서 작용하여 재문화적응과정에서 경험되는 스트레스를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적응 모형에서 주장하였던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시키고 조절할 수 있는 개인내

적 혹은 환경적 요인들의 존재와 중요성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근거할 때, 귀국에 수반되는 변화로부터 기인하는 특수한 형태의 스트레스인 재문화충격에 있어서는 특히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적응을 돕는 대처자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가족지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적 지지는 귀국성인의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안녕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고, 재문화충격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재문화적응과정과 개인의 안녕감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주와 같은 큰 환경변화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는 재문화적응과정의 심리적 적응(Huff, 2001; Kanno, 2000; Stringham, 1990)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만약 지지원이 낮을 경우 재문화적응과정을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Kanno, 2000)는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지지의 보존은 귀국성인들의 안녕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부모의 지지(Yoshida et al., 2002), 모국친구의 지지(Neto et al., 2011), 해외친구의 지지(Berry et al., 1989; Cemalcilar et al., 2005; Cox, 2004; Neto et al., 2011)는 재적응과정에서의 재문화충격 경험을 감소시켜주고 안녕감을 증진시켜주는 데에 관련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세 번째 가설인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모국정체성이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국정체성은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재문화충격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국

정체성이 높은 경우 귀국 후 심리적 적응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Cox, 2004; Kanno, 2000; Sussman, 2001, 2002). 한편 예상한 바와 같이 외국정체성은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상관관계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가설과 달리 모국정체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모국정체성이 재문화충격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국정체성이 높은 경우 재문화충격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국정체성의 조절효과가 특수한 맥락에서는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재문화충격과 모국정체성간의 이원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삼원상호작용(재문화충격, 가족지지, 모국정체성)의 분석 결과에서는 삼원상호작용항이 유의하였다. 이는 모국정체성이 특정한 맥락(본 연구에서는 가족지지가 낮은 경우)에서는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문화정체성이 상보적으로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은 가족지지와 모국정체성 요인에서만 지지되었다. 재문화충격, 가족지지, 모국정체성의 삼원상호작용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가 가족지지 및 모국정체성의 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지지와 모국정체성이 모두 낮은 경우에 비해 둘 중 하나라도 높은 경우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부적 관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들의 경우 재문화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 요인들로 개인내적 요인(Cox, 2004; Kanno, 2000; Sussman, 2001, 2002)과 환경적 요인(Berry et al.,

1989; Cemalcilar et al., 2005; Cox, 2004; Neto et al., 2011; Yoshida et al., 2002)을 분리하여 검증함으로써 이들 요인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차별성이 있으며, 특히 모국정체성이라는 개인내적인 대처자원과 가족지지라는 환경적 대처자원이 함께 작용하며 한 요인의 결핍을 다른 요인이 보완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국내연구들이 귀국청소년들의 재문화적응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을 넘어서 귀국성인을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청소년기 이후의 귀국집단의 재문화적응 경험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연구결과, 가족으로부터의 지지와 모국 정체성은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부적 관계에 중요한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족지지가 가지는 조절효과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원 중 친밀감이 강한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재문화충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외국친구지지와 모국친구지지 또한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었으나, 재문화충격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의 영향을 완충하는 조절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연구대상이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가족은 청소년기 이후에도 귀국성인들의 재문화적응 어려움에 대처하는 자원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모국정체성 역시 조절변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특히 가족의 지지가 낮은 경우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정체성은 모국문화의 수용과 동일시를 제공하여 내적인 대처자원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결과는 귀국성인들 중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며 모국정체성 역시 낮은 사람들의 경우 재문화충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보다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에 대한 개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선행연구에 의하면 해외이주 후 귀국한 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가족 간 교류가 적고 가족문제를 더 많이 보고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Kor et al., 2012), 귀국집단의 재문화충격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개인단위보다는 가족중심의 개입이 더욱 중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간에 존재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나 의사소통의 단절에 초점을 맞춘 가족단위 개입은 귀국집단의 재문화충격에 대한 대처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모국 문화의 재사회화 과정은 귀국집단의 모국정체성을 변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개입초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한점은 작은 표본크기이다. 연구대상 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통계적 분석을 위한 최소한의 표본수만이 연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력을 확보하지 못했을 수 있다. 관련하여, 제한된 표본으로 인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연령(Moore et al., 1987; Rohrlach et al., 1991), 성별(Brabant et al., 1990; Rohrlach et al., 1991), 교육수준(Moore et al., 1987), 해외체류기간(Moore et al., 1987), 귀국시기(Yoshida et al., 2002)등 역시 귀국 후 재문화적응과정에 관련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분석하기 위한 표본수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에 좀 더 정교화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에는 보다 큰 표본을 대상으로 이러한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집이 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문화적응과 재문화적응경험은 일련의 심리적 변화를 수반하는 과정임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귀국 후 경험하는 변화과정에 초점을 맞춘 질적, 양적 연구를 통해 재문화충격과 관련 조절변인들의 영향력 변화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가 귀국성인집단의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가족의 지지와 모국정체성이 조절 및 완충효과를 가진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가족지지 및 모국정체성을 증진할 수 있는 개입방법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추후 요구된다. 재문화적응 과정에서 가족지지와 모국정체성을 예측하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이들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개입방법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무적 함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명희 (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심리사회적 자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 학보*, 15(1), 275-302.
- 김민정 (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가정폭력이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1-28.
- 김연수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 및 문화적응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12) 229-256.
- 문경숙, 임재훈, 윤철경, 송민경 (2009).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9(8), 275.
- 박영숙, 박광배, 최상진, Marsella, A., 김주한 (2002). 미국 일시거주 한인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적응 촉진을 위한 인터넷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97-139.
- 박승리 (2012). 귀국학생의 국가정체성 형성 실태.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한나 (2007). 유학생의 자기 결정적 동기, 문화적응, 정신건강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 (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5-113.
- 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2010). 해외거주 후 국내대학에 진학한 귀국 대학생의 문화적응양상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2), 125-146.
- 이영선, 이동훈 (2009). 상담일반: 귀국 청소년의 국내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0(4), 1785-1804.

- 이주원 (2013). 귀국 대학생의 민족적 정체감과 정서적 소외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재외 한국학교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귀국한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성옥, 박민정 (2011). 부모의 양육태도유형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빈곤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0), 229-252.
- 홍세희 (2006). 최근 상담심리연구의 동향과 연구방법론. 한국상담심리학회 동계학술연구자료.
- Adler, N. (1981). Re-entry: Manag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Group & Organizational Studies*, 6, 341-56.
- Berry, J. W., Kim, U. C.,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491-511.
- Berry, J. W., Kim, U., Power, S., Young, M., & Bujaki, M. (1989). Acculturation studies in plural societie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38, 135-86.
- Black, J. S., Gregersen, H. B., & Mendenhall, M. E. (1992). Toward a theoretical framework of repatriation adjus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3, 737-760.
- Brabant, S., Palmer, C. E., & Gramling, R. (1990). Returning home: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cross-cultural reent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4, 387-404.
- Brislin, R., & Pederson, P. (1976). *Cross-cultural orientation programs*. New York: Gardner Press.
- Cemalcilar, Z., Falbo, T., & Stapleton, L. M. (2005). Cyber communication: A new opportunity for international students'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91-110.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ox, J. B. (2004). The role of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cultural identity in repatriation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8(3-4), 201-219.
- Dawson, J. F. (2014). Moderation in management research: What, why, when, and how.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29(1), 1-19.
- Diener, E. (2012). New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for subjective well-being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67(8), 590-597.
- Fray, J. S. (1988). *An exploratory study of the culture shock experience of missionary children homecomer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nnessee.
- Gama, E. M. P., & Pedersen, P. (1977). Readjustment problems of Brazilian returnees from graduate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 46-57.
- Gao, G., & Gudykunst, W. B. (1990). Uncertainty, anxiety, and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4, 301-317.
- Gaw, K. (2000). Reverse culture shock in students returning from oversea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 83-104.
- Hamill, S. K., Scott, W. D., Dearing, E., & Pepper, C. M. (2009). Affective style and depressive symptoms in youth of a North American Plains tribe: The moderating roles

- of cultural identity, grade level, and behavioral inhibi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 110-115.
- Huff, J. L. (2001). Parental Attachment, Reverse Culture Shock,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llege Adjustment of Missionary Children.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9(3).
- Hurn, B. J. (1999). Repatriation-the toughest assignment of all. *Industrial and Commercial Training*, 31(6), 224-228.
- Iturbide, M. I., Raffaelli, M., & Carlo, G. (2009). Protective effects of ethnic identity on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31(4), 536-552.
- Kanno, Y. (2000). Kikokushijo as bicultural.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 261-382.
- Kidder, L. H. (1992). Requirements of being "Japanes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6(4), 383-393.
- Kobayashi, T. (1983). Adjustment of returnees. *Kyoniku Shinri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1(5), 74-79.
- Kor, A., Mikulincer, M., & Pirutinsky, S. (2012). Family Functioning Among Returnees to Orthodox Judaism in Israe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1), 149-158.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ee, J., Koeske, G. F., & Sales, E. (2004). Social support buffering of acculturative stress: a study of mental health symptoms among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8, 399-414.
- Mallinckrodt, B., & Leong, F. T. (1992).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stres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3, 71-78.
- Martin, J. N. (1984). The intercultural re-entry: Conceptualization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8, 115-134.
- Minoura, Y. (1988). The psychological reorganization of overseas experience after returning to Japan: A symbolic interactionist approach to returnees. *Shakai Shinrigaku Kenyu*, 3(2), 3-11.
- Moore, L. A., Jones, B. V., & Austin, C. N. (1987). Predictors of reverse culture shock among North American Church of Christ missionarie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5(4), 336-341.
- Neto, F., & Neto, J. (2011).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adolescents from returned Portuguese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Social Research & Policy*, 2(2), 27-46.
- Prezza, M., & Sgarro, M. (1992). Instruments for evaluating the social network and social support. *Giornale Italiano di Psicologia*, 5, 729-752.
- Rogers, J., & Ward, C. (1993). Expectation-experience discrepancie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reent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7, 185-196.
- Rohrlich, B. F., & Martin, J. N. (1991). Host country and reentry adjustments of student sojourner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5, 163-182.

- Salmon, J. L. (1987). *The relationship of stress and mobility to the psychological development and well-being of third-culture-reared early adults*. Doctoral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 Stringham, E. M. (1990). *The reacculturation of American missionary famili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 Sussman, N. (1986). Reentry research and training: Methods and im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0(2), 235-253.
- Sussman, N. M. (2001). Repatriation transitions: psychological preparedness, cultural identity, and attributions among American manager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5, 109-123.
- Sussman, N. M. (2002). Testing the cultural identity model of the cultural transition cycle: Sojourners return hom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6, 391-408.
- Uehara, A. (1986). The nature of American student reentry adjustment and perception of the sojourn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0(4), 415-438.
- Umana-Taylor, A. J., Updegraff, K. A., & Gonzales-Backen, M. A. (2011). Mexican-Origin Adolescent Mothers' Stressors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Examining Ethnic Identity Affirmation and Familism as Moderator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40, 120-157.
- Umana-Taylor, A. J., Wong, J. J., Gonzales, N. A., & Dumka, L. E. (2011). Ethnic Identity and Gender as Moderators of the Association between Discrimination and Academic Adjustment among Mexican-origin Adolescents. *NIH*, 35(4), 773-786.
- Ward, C., & Kennedy, A. (1994). Acculturation strategies,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ociocultural competence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8, 329-343.
- Ward, C., & Kennedy, A. (1999). The measurement of sociocultural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3(4), 659-677.
- Ward, C., & Rana-Deuba, A. (1999).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revisited.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0(4), 422-442.
- Yoshida, T., Matsumoto, D., Akashi, S., Akiyama, T., Furuiye, A., Ishii, C., & Moriyoshi, N. (2009). Contrasting experiences in Japanese returnee adjustment: Those who adjust easily and those who do no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3, 265-276.
- Yoshida, T., Matsumoto, D., Akiyama, T., Moriyoshi, N., Furuiye, A., Ishii, C., & Franklin, B. (2002). The Japanese returnee experience: factors that affect reent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6, 429-445.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 논문 투고일 : 2014. 09. 25
1 차 심사일 : 2014. 11. 07
게재 확정일 : 2015. 01. 13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s and cultural identity on the relationships of reverse culture shock, and subjective well-being

Seung-Min Lee

Konkuk University,
Student Counselling Center

Eunjoo Yang

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This study explored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s (family support, home friends support, foreign friends support) and cultural identity (home identity, foreign identity) on the relationships of reverse culture shock and subjective well-being. Participants were 157 returnees who left home-country prior to the age of 19 and resided in the foreign-country for more than three years.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on two-way interaction effect between reverse culture shock and each hypothesized moderator (e.g., family support, home friends support, foreign friends support, home identity, foreign identity) indicated that reverse cultural shock and subjective well-being was negatively related and their relationship was moderated only by family support. Specif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reverse culture shock and subjective well-being was weaker when the level of family support was higher. Subsequently, three-way interaction among reverse culture shock, one of the social support factors, and one of the cultural identity factors was investigated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hree-way interaction among reverse culture shock, family support, and home identity was significant. The slope difference tests yield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reverse culture shock and subjective well-being was stronger when both levels of family support and home identity were lower compared to when either level of family support or home identity was higher. These results imply that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family support and intrapsychic factor such as home identity might function as a buffer against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reverse culture shock experience.

Key words : reverse culture shock, cultural identity, social support, subjective well-being